

이코노 & 비즈 피플

조학현 주택금융공사 광주지사장

▲ 코스피지수 1996.52(+9.66) ▲ 코스닥지수 516.59(+1.93) ▼ 금리(국고채 3년) 2.73%(-0.01) ▼ 원·달러 환율 1062.30원(-0.60)

“금융상품 활성화 서민 주거안정 도움”

적격대출·보금자리론 적극 활용을
광주 U대회 끝난후 집값 떨어질 것

“집값이 하락해도 경제적인 타격을 받지 않도록 지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앞장서겠습니다.”

올해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광주지사를 이끌게 된 조학현 광주지사는 “올해를 서민과 함께하는 최고의 주택금융 전문기관이라는 공사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원년으로 삼고 지역민의 주거행복과 주택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조 지사는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 주거복지와 생활안정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공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다”며 “공사의 주택금융 지원 혜택이 더 많은

지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주택연금과 u-보금자리론 등 서민금융상품 공급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지역 뿐 아니라 지방까지 확산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침체에 대해 조 지사는 “엑스포 등 지역에 짜증한 이슈가 많아 광주·전남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보다 훨씬 여건이 좋았었다”며 “하지만 최근들어 거래량이 하락하고 있는데 하게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끝나고 3500세대 이상 공급이 되면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 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절실히 하지만 집값이 하락해도 경제



는 장기고정금리 대출), 보금자리론(장기주택담보 대출), 주택연금(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연금방식으로 받는 제도) 등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잘 활용하면 내 집 마련부터 노후까지 경제생활을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조 광주지사장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상품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히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 주는 금리우대형 ‘보금자리론’과 ‘주택연금’을 널리 알리는 데 집중 할 계획이다.

회신 출신인 조 광주지사장은 광주상고와 조선대를 졸업한 뒤 1987년 신용보증기금 입사, 2004년 한국주택금융공사 입사 후 감사실장, 전북지사장을 역임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



설맞이 식품안전 점검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박태식)가 설(2월10일)을 앞두고 2월 1일까지 광주지역 내 마트를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와 식품안전 관리 등을 집중점검한다.

백현기 안전공단 이사장

광주지역 산업현장 점검

백현기(58)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22일 광주지역 산업현장을 찾아 안전 및 보건관련 문제점을 파악하는 현장 점검에 나섰다.

백 이사장은 이날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 등을 방문, 안전보건 실태와 지

원현황을 살폈으며 근로자들의 안전성을 청취하고 공단의 지원강화방안을 모색했다. 백 이사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높이고,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해 산재예방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산재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현장 중심 경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전남중기청 시책설명회 가보니

400여명 몰려 “새정부 피부 와닿는 지원 기대”



“새 정부의 화두가 중소기업 아닙니까.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22일 오후 2시 광주시 북구 광기술원 대회의실. 이날 광주·전남지방 중소기업청이 개최한 광주권 ‘중소기업 시책설명회’는 주최 측 예상보다 많은 400여 명이 몰려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지난해 행사 때 250여 명이 참석했던 것에 비하면 정부지원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절실히 그 어느 때보다 큰 것으로 보였다.

광주에서 20명 규모의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경기가 좋지 않은데 대기업마다 납품 분야에 치고 들어오는 바람에 매출 하락세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피부에 와닿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6명의 직원과 함께 기계부품을 만드는 B씨는 “소기업이 가장 필요한 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자금”이라며 “기술력은 있는 데 자금이 없어 제품 생산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설명회는 금융과 자금, 수출 및 R&D 등 기업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 바뀐 시책을 소개하는 순서로 이뤄졌다. 중기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들이 출동했으며 회의실을 가득

메운 기업인들은 2시간 여 설명회 동안 자리를 뜨지 않을 정도로 열기를 보였다.

설명회 외에도 자금 지원과 고용, 수출상담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일대일 상담을 펼쳐 호응을 이끌어냈다.

C사 부설연구소장은 “중소기업청 R&D 사업은 참여하기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오늘 설명회를 듣고 자

신감이 생겼다”며 “상담을 통해 준비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알찬 시간이었다”고 평했다.

중기청 설명회는 기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광주에 이어 23일 광양, 28일 담양, 29일 목포, 31일 순천 등 20여 곳의 시군에서 계속된다. 자세한 일정은 중기청 홈페이지(www.smib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작년 광주·전남 체불임금 531억…전년비 16.5% 늘어

2010년 이후 광주·전남 지역의 노동자 수는 많아지고 있으나 이에 따른 체불임금은 점차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체불임금이 전년대비 16.5% 증가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발생한 광주·전남 지역의 체불임금은 531억 원(광주 228억원, 전남 303억원)으로 2011년 456억원(광주 177억원, 전남 279억원)에 비해 7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로 체불임금 발생현황을 보면 광주는 체불발생 전체 3167개소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 1946곳, 5~29인 사업장 983곳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했고 전남은 3026개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 1661곳, 5~29인 사업장 1070곳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 1·2위 모두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해 주로

영세한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청은 “영세규모·취업업종 중심으로 체불이 다수 발생했다”며 “특히 경기 침체 여파로 2012년 체불임금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설을 앞두고 임금 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명절 전 3주간(1월 21일~2월 8일)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불 청산에 나선다. 전답반을 운영해 신속히 체불 정보를 파악하도록 하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을 예방·청산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설 전 지급을 촉구하고 체불이 자주 발생한 사업체와 하도급 공사로 체불 가능성이 큰 건설 현장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박태식)

가 설(2월10일)을 앞두고 2월 1일까지 광주지역 내 마트를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와 식품안전 관리 등을 집중점검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전남 특산물 대전

롯데백화점 광주점(점장 류민열)이 설을 앞두고 오는 25일부터 2월 9일까지 ‘전남 특산물 대전’을 진행한다.

이번 특산물 대전은 전남지역 농가 소득 확대와 지역 특산물 전국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롯데는 설 명절 전체 선물세트 중 전남지역 특산물 비중을 80%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전년보다 20% 이상 증가한 것이다.

백화점은 ▲나주 녹색한우 ▲영광 법столь류비 ▲만전식품 완도 김세트 ▲장흥 표고세트·백화고·동충하초 ▲담양 한과 ▲한국제다 보성 녹차 ▲고흥 유자차 ▲장성 사과 등 전남지역 대표 특산물 200여종을 선보인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세 얼굴

“소비자 보호·생보문화 확산 매진”

김종후 생보협회 호남지역본부장



“올해는 생명보험협회와 생보업계가 공동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중장기 성장의 활로를 모색하고 보험회사와 소비자간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올해 첫 본부체제로 격상한 생명보험협회 호남지역본부를 맡게 된 김종후 본부장은 “호남본부가 첫 본부체제로 격상한 만큼 열심히 노력해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며 “특히 유관기관과 회원사 간 협의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민원처리를 줄이고, 지역언론을

통한 생보문화 확산 등 생명보험 협회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광주에 이어 23일 광양, 28일 담양, 29일 목포, 31일 순천 등 20여 곳의 시군에서 계속된다.

자세한 일정은 중기청 홈페이지(www.smib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펠렛 불꽃난로 온풍기

기존 난방비용대비 70% 절감효율

탄소배출량도 줄이고, 연료비도 절감하는 펠렛불꽃난로 온풍기!!
연료비 경쟁력 이제 그만!



A형	불꽃난로 제품규격	B형
단독형(스토브식) 난로	명 220V, 60Hz 500 x 530 x 870	청 220V, 60Hz 550 x 750 x 1050
5인	외형 체적 55kg	5인 체적 80kg
일 8시간 기준 약 10kg	최소 연료 최대 20kg	일 8시간 기준 약 12kg 최대 30kg
사용량 일 8시간 기준 약 8kg	연료 저장량 60W	사용량 일 8시간 기준 약 10kg 연료 저장량 70W
최대 83m ² (구 약 20~30평형)	시공 면적	최대 149m ² (구 약 40~50평형)

제품명	사용연료	일 8시간기준 사용량	금액환산
펠렛난로	우드펠렛	약 10kg	3,500원
석유온풍기	석유	약 16L	22,400원
전기온풍기	전기	약 32Kw	10,163원
석유난로	석유	약 10.4L	14,560원

단, 전기온풍기는 0~100kw 사용했을 경우의 금액 사용량이 높아나면 최고 112kw까지 증가 26일 사용량 728kw 사용량 약 10,923원

문의 070-4111-7823
전화 010-9468-3282

대리점 · 취급점 · 딜러
영업사원모집 (유사업종 우대)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눈은 강장의 기능과 연관이 있다. 눈의 과로한 환경과 더불어 정신적인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거나 고뇌와 분노로 말미암아 간기능이 물결되어 화(火)로 변하면 그 화기가 인체 상부 즉 머리와 눈으로 뿐만 아니라 침침하고 아득할 정도로 피로해진다. 이러한 증상을 안구건조라 한다.

말기상황에 가까워지면 눈에 통증을 느끼며 눈을 잘 풀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인다라한의원 광천사거리 광천피죤소 맞은편
www.indara.co.kr
광주은행 6층신세계백화점사거리

광주점 062-368-5075

현대인 누구나 겪고 있는 스트레스성 질환의 해결법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해결책을 찾다!

</div